GRACE 선교소식

2026년 11월 GMI-GKC 선교사 현황: 60개국 311명 (자체파송 79%)

감사는 인생을 바꿉니다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전주 바울교회(담임 신현모 목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는 전주 지역을 대표할 만큼 성장하여 세계 선교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담임하시는 신현모 목사님은 과거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목회하실 때 저와 함께 교계 연합사역에 동역하셨던 분입니다. 오랜 동역의 인연이 있기에 더욱 반갑고, 목회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집회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매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 바울교회도 우리 GMI와 함께 세계 선교의 귀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생각하면 감사이며, 앞날을 바라보면 더욱 소망이 넘칩니다.
이번 집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간증들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간증을 나눌수록 제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더욱 뜨거워지고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GMI 은혜한인교회에서 **"감사는 인생을 바꾼다"**는 주제로 추수감사 부흥성회를 갖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감사에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2. 감사하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3. 감사하면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4.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변화됩니다.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GMI 은혜교회 공동의회: 11/8
- 한미 목회자 포럼: 11/10-11/12
- 추수감사 특별새벽부흥회: 11/16-11/21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5.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부흥성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레이스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일천번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국

김OOO / 양OO 선교사

이곳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에녹이도 처음에 시차적응으로 몇주를 힘들어했지만, 차차 적응을 잘하며 지금은 이유식도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곳은 여전히 친구들이 저희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에녹이를 처음 만나볼 생각에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변화의 시간들을 지나, 지금은 회복과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돌아와 만난 친구들 소식 전합니다.
수단 K자매는 둘째를 임신하여 만삭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출산을 하였습니다. 산모와 아기 건강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와 회복중이라고 합니다. 이 자매가 성경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데, 남편이 만나는 걸 싫어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 잘하고 남편의 마음이 열려서 K자매를 다시 만나 예수님의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수단 D형제는 저희 부부가 미국에 있는 동안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수단으로 결국 추방되었습니다. 수단으로 돌아가서야 연락이 되었는데, 감옥에서 피부병이 걸리고 그리고 대학공부를 마치기 위해 다시 브로커를 통해 준비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또 그 형제의 길을 인도하시길 기도 부탁합니다.



현지 R자매는 갑상선 문제에 유방에도 문제가 생긴거 같은데, 하나뿐인 딸이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학비가 올해부터 두배라서 싱글맘인 R자매가 검사와 치료를 미루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총재: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446-6200 gkcgmiusa@gmail.com

탄자니아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에버그린 학교 건축을 진행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달리다 보니 3년간을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였다가 지난 7월에 선교사 수련회를 계기로 고국땅을 밟게 되었는데 낯설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의 절친 남편이 아파서 1월부터 입원치료하며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우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면서 도착한 다음날 아내 친구로부터 입원하고 있는 암병동으로 와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3일간 병실을 오가며 복음을 전했고 위급상황을 넘기다가 3일째 되는 날 천국환송예배로 친구를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기에 만나지 못했어도 자주 소식을 전하며 지내는 관계였는데 몇년 동안 보지 못하다가 만나자마자 갑자기 이땅에서 이별하는 것이 용납이 안되어 한동안은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가 우리를 보고 싶어했고 많이 기다렸다는데 다행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환송예배를 드릴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번 가까운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땅에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 주셨고 또한 선교사 수련회를 통해 쉼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에버그린 학교 이야기

에버그린 학교 3학년(10/22-24)과 7학년(10/26-29) 학생들이 중요한 국가시험(National Examination)을 앞두고 있어 학교 전체가 마지막 준비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흘린 땀방울이 열매 맺고, 아이들이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잔지바르 이 나라의 귀한 복음의 리더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7학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리게만 생각하던 아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받은 감동을 나눌 때에 깜짝 놀라고 참 대견하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에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학교건축을 마치고 급하게 입주하였지만 현지 기술자들의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 곳곳마다 제대로 마무리 된 것이 없어 손볼 곳이 셀 수 없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모를 상황입니다. 우선 창문 방범틀을 제작해서 부착했는데 사이즈를 제대로 재어 만든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창문마다 틈이 있어 우기철이 오기 전에 틈새를 막아야 했습니다. 또 손씻는 하수관 레벨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오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냄새가 나고 땅을 파서 다시 배관 레벨을 맞추는 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유리창문을 제작했는데 한두개는 잘하는가 싶었는데, 다른 곳의 창문사이즈가 작은데도 그냥 부착을 해서 하늘이 보이는 틈이 생겨 다시 제작을 요구했는데 목공용 본드로 임시방편으로 막고, 또 창문이 닫히지도 열리지도 않는데 돈만 받아가려고 해서 실랑이를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니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한편, 건물 완공과 이사를 마친 에버그린 학교는 현재 책걸상 제작 등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막바지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업 중에 있어서 공사로 인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짬짬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사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 건물을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현지 교사들과 스텝들이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학교를 세워가며, 학생들에게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학교 이야기

노아학교의 중요한 사역의 하나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한 끼의 식사일 수 있지만,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식사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아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잔지바르는 이슬람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지역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삶으로, 가르침보다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한 사랑과 배려가 가정으로 이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이 퍼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학교이고 우리의 손길도 부족하지만, 이곳에 뿌려지는 사랑과 섬김의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대학 이야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성경대학 학생들을 잘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제가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훈련시킬 것을 믿으며 저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 받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지교회를 빌려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경대학 교실을 지을 계획으로 관계기관에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히 허가를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사랑 잊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충성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경대학의 학생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자 이야기

비자 갱신일 몇달 전부터 신청을 일찍하였는데, 결국 비자 만료일(2026.5.20)이 지나기까지 비자를 받지 못하여서 한국에 들어갔다가, 여행비자를 3개월 받아 잔지바르에 입국하였고 장기비자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L국

천OO / 이OO 선교사

복음전도사역

지난 7월에는 복음을 통해 두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태국 후아힌 회의 참석 중 호텔에서 만난 태국 청년 P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품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영접 및 축복 기도 후 태국어 성경책을 선물로 전했습니다. 또한 L국 시골 지방 방문시 만난 K청년은 교회나 성도가 전혀 없고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환경에서 부모님과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나누었을 때 K



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L국 현지 여건상 공식적인 복음 전도에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현장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지혜롭게 전도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지 사립초등학교 전도집회 사역

지난 8월 11일~12일에는 중국 교회 지도자 두 분께서 L국를 방문하여 저희 가정과 협력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와 미술(이 선교사)을 가르치며 다가갔고, 일정 마지막 날에는 참석한 모든 학생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참석한 학생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령세미나 인도

8월 14일에는 중국에서 전도여행을 오신 가정교회 지도자 두분을 상대로 일일 성령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은사를 사모하던 한분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시고 다른 한분은 오랫동안 통증으로 시달리던 귀와 턱이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훈련 및 교회개척 사역

매주 토요일 가정에서 L족 형제들과 함께 예배와 성경공부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성장해 L국 복음화를 위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BST 강사모임 참석

L국에서 BST(복음전도, 제자훈련, 교회개척 사역) 강사로 섬기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BST장년강사모임에 참석하여 열방 각나라에서 모인 선교사님들과 사역비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향후 L국에 BST사역이 잘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지 학교 사역

비자 해결과 다음세대 복음화를 위해 저희가 교사로 섬기고 있는 S School에서 중국어를, 이선교사는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선교사는 D School이라는 사립초등학교에서 추가로 음악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김광석 / 이영미 선교사

캄보디아 명절인 푸춤번(추석)이 끝났습니다. 항상 명절만 되면 거의 한 달은 교회가 어수선합니다. 어른 성도들이 출석은 하고 있으나 아직 믿음이 없고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적어도 2주 이상은 집안의 행사 때문에 출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 가정에 심방을 갔었습니다. 근데 전에 교회에 잠깐 출석하다 안 나오고 있는 한 가정이 그 옆집으로 이사를 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교회에 잠깐 나왔을 때 자신들의 문제로 교회를 힘들게만 하고 물질적 도움만 받고 떠났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뿌리며 안 보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히 마음 안에서는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 때 마음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할일을 하라” 그들의 마음이 어찌됐건 제가 할일은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축복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사역할 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씀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어수선하던 상황들이 빨리 회복되고 이제 새롭게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도 이때만 되면 출석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은 수영장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변에 시설이 좋고 가격도 싼 수영장이 있어 분기별로 수영장에 가서 물놀이를 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물놀이에 참여할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활발한 예배가 드려질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나오은혜교회는 프놈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시골과 도시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보다 공장으로 바로 취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교 갈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고



등학교에 올라가는 친구 중에 정말 공부하고 싶어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있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 친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도 자라서 다른 친구들의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출석하였던 쩜으런과 리읍이라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시기를 잘 이기고 다시금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P국

이OO / 장OO 선교사

기다림 속에서 배우는 사랑

한국어학당 유치를 위한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와 준비를 이어왔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움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북부 산악지대에서 만난 A형제

지난 북부 S지역 방문 중 트레킹 가이드로 일하는 A 형제를 만나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A형제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고, 이후 성경책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산악지대를 오가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A형제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장차 그가 걸어가는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M마을에 시작된 주일학교 예배

기숙사 건축이 진행 중인 M마을에 감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주일학교 예배에 사용할 스피커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온 성도들이 더욱 전심으로 예배하며 이 마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J도시의 구세군 교회를 비롯하여 종교적 극단주의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성도들을 위한 트라우마 회복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세군 리더십들을 초청하여 트라우마 치료와 회복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함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교회 리더들이 상처 입



은 이들의 아픔에 더욱 공감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섬기는 이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역시 이 시간을 통해 이 땅의 작고 연약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의 성도들뿐 아니라, 가정의 깨어짐과 가난, 상처로 고통받는 무슬림 이웃들을 더욱 가까이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상담과 트라우마 회복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준비하여, 신앙적 배경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엘살바도르

최용준 / 최재숙 선교사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달려가는 10월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도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물질의 헌신으로 중미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인카운터 4기

지난 7월, 과테말라 케짤테낭고에서 인카운터(Encounter) 4기가 주님의 은혜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치유와 회복, 영적 새로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인카운터는 저희가 10년 전에 과테말라 케짤테낭고 지역에 개척한 GMI 과테말라 은혜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뜻깊고 감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룹 22에서 오셔서 과테말라 GMI La Gracia 교회10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로, 영적 양적으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전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살바도르 목회자 컨퍼런스(IUM)

지난 8월에 GMI 엘살바도르가 결성한 "선교를 위한 교회협의회"(IUM : Iglesias Unidas para las Misiones) 첫 목회자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최홍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종(사1-4)"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회자 300여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집회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하여, 엘살바도르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GMI의 선교적 말씀과 영성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중미 AFA #2기

지난 9월에 엘살바도르에서 중미 4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목회자와 청년 리더들이 중앙 아메리카 티디 AFA 2기로 모여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로서 큰 기쁨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티디를 경험한 각 나라의 이 젊은 리더들이 GMI와 함께하며 중미 교회의 청년들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청년들 중에서 많은 주의 종들을 육성하는 사역에 저희는 혼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김영대 / 조정아 선교사

새소망교회 공동체
Light & Salt 빛소금 장학생
새소망교회 공동체의 빛소금 장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을 이어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학생들이 장학금과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더욱 깊이 느끼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앙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장학금의 도움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장차 각자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0호 새소망교회 건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천순동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30호 새소망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은 단순히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한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귀한 사역입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자재, 인력 등 모든 부분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가 완공된 후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자라며, 지역사회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후원하는 순천순동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가 캄보디아 복음화의 귀한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캄퐁츠낭 지역 사역자 훈련
최근 캄퐁츠낭 지역에서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3일간의 사역자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훈련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사역자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배운 것을 잘 실천하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역자들을 통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각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캄퐁츠낭 지역을 넘어 캄보디아 전역에 말씀으로 훈련된 사역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캄장신)
새 학기를 맞이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 전체 신입생 51명이 입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신학교에서 훈련받을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학교는 단순히 신학 지식을 배우는 곳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새롭게 입학한 51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성실히 임할 뿐 아니라,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적 지식과 더불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수진과 모든 교직원에게도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후 캄보디아 곳곳의 교회와 사역 현장으로 나아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또 다른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캄장신을 통해 캄보디아 교회가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올네이션 국제학교
올네이션 국제학교에는 현재 약 900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네이션 국제학교가 학생들에게 지식과 실력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견하며,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도 성숙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더 많은 학생이 올네이션 국제학교에 등록하여 배움의 기회를 얻고, 학교를 통해 복음을 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주시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모든 여건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네이션 국제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캄보디아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장차 사회 각 분야에서 정직과 사랑으로 섬기며,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귀한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학교의 모든 교육과 예배, 말씀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가정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 언약, 새 계명, 새 창조,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구속사

<1분단상 158-11월호>
- 김대규 장로

새 언약, 새 계명, 새 창조, 새 예루살렘은 구속사의 흐름이다. 이는 서로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보다 이해키 위해서는 옛 언약을 보아야 한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신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다(출19:5,6). 그리고 돌판에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반포하셨다. 그 후 세부적인 율법도 주셔서 지키게 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와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회복을 위해 새 언약을 예고하셨다(렘31: 31,33, 겔 36:26, 27).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고 선언하신 것이다. 옛 언약이 외적 명령이라면 새 언약은 내적 변화이다.

그 후 예수님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 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22:20)고 새 언약을 주셨다. 이전 것과는 다른 새로운 성격과 질서를 나타내는 Kainos(헬. καινός 카이노스: 질적 새로움,변혁) 인 것이다.

옛 언약이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요구했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한 것이다. 존재의 변화와 순종이다.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시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길을 내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는 새 계명도 주셨다. 왜 "사랑"에 초점을 맞추었을까?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에 최고의 수준의 삶을 살라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이 새 언약을 실행하는 삶의 방식이다. 믿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 가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진지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따라서 조금 개선된 옛사람이 아니라 전혀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의 질서에 속한 새로운 존재이다. 이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갈2:20).

그리하여 우리는 주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고후5:17)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갱신되어(엡4:23)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게 되었다(엡4:24). 이것이 새 창조의 시작이다. 존재의 새로운 변혁이다. 이는 새 생명이 실제 인간의 생각과 성품 속으로 스며드는 지속적인 갱신을 말한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새롭게 되어 가야 한다.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는 삶이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 가는 성화 과정인 것이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새 창조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 을 닮아야 하기 때문이다(롬8:29).

그러므로 새 언약은 새 창조의 토대를 이루고, 새 창조된 백성은 성령의 지속적인 갱신 가운데 새 계명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 창조의 역사는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완성된 공동체를 나타내는 중심적, 종말론적 실재(계 21:1-5)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καινός(카이노스:질적 새로움, 변혁)는 한마디로 새 창조(New Creation)의 시작 → 갱신(Renewal) → 완성(Consummation)로 요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Already(이미) → Ongoing Renewal/Transformation(진행되는 갱신과 변혁) → Consummation(미래의 완성) 이다.

이것을 새 창조 안에 있는 자의 삶으로 표현한다면 새 언약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으로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 새 계명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삶이다. 곧 주님만을 닮는 삶이다. 이는 어떠한 환란과 역경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라고 말한다. 이런 세상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는 새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여야 한다. 우리는 각성하여 그리스도 안에 굳게 거하며, 성령께서 이루시는 카이노스의 새로움을 날마다 살아내야 한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L국 천OO / 이OO 선교사

1. 복음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2. 예배와 제자훈련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3. 11월 태국 방콕에서 진행될 L국 & 태국 연합 TD가운데 캔디데이트와 팀멤버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4. S학교와 D학교에서 맡은 수업을 잘 감당하고 아이들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5. 언어의 진보를 위해서 L언어로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강의하는데 지혜를 주시도록
6. 물가가 많이 오르고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재정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탄자니아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1.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잔지바 이슬람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받게 해 주세요.
2. 에버그린 학교 3학년과 7학년 아이들 국가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도록, 앞으로 에버그린, 노아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생명수처럼 흘러 나오는 요새와 산성같은 학교가 되게 해 주세요.
3. 제 11기 성경대학 학생들이 마지막 훈련을 마치는 순간까지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4. 비자를 순적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5.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영육에 강건함과, 두 아들들이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고, 직장을 순적히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6. 우리 부부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E국 김OOO / 양OO 선교사

1. 내년초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2. 주변에 아픈 영혼들이 꽤 있습니다. 이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연합의 더 힘쓰며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 중동에 하루속히 평화가 오고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5. 우리 가정 성령충만과 사랑으로 주님께 합한 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김광석/ 이영미 선교사

스나오은혜 교회를 위해

1. 쓰나오 은혜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복음전파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2.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속 사람이 변화하여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3. 사역자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4.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5. 오르난의 타작 마당처럼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도록

선교사를 위하여

1.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2.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시대를 분별하고 강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3.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4. 필요한 생활비와 사역비가 넉넉히 채워지도록
5. 세 자녀 드보라 다니엘 샤론이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엘살바도르 최용준 / 최재숙 선교사

1.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는 선교사가 되도록
2. GMI 중미 선교센터가 중미 선교부흥의 영적 허브가 되도록
3. 2027년 GMI 중미신학교 신입생 모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4. 대학생 복음전도사역(Modu Campus El Salvador)과 청년사역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5. 2026년 12월 중미 청소년 컨퍼런스 3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6. 2027년 니카라과 사역(목회자 컨퍼런스, 인카운터, 중미 TD 3기) 이 잘 준비되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7.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은혜교회(La Gracia)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부흥과 연합을 이루도록



P국 이OO / 장OO 선교사

1. 한국어학당 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다림 속에서도 인내와 사랑으로 현지인들을 섬기도록
2. 북부 S지역의 A형제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3. M마을의 기숙사 건축과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예배가 세워지도록
4. 현지 교회 리더들이 상처 입은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무슬림 취약계층까지 섬기는 사역의 길이 열리도록
5. 장한나 사역자의 온전한 회복과 팔복이의 건강한 성장, 가족 모두의 영육 간 강건함을 위해
6. 여러 사역지를 안전하게 방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적합한 차량이 마련되도록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태국 라오스 TD 3기 (11/21-11/28)**
  S/L: 송종호 목사
  렉터 : 양한철 집사
  문의: 안규범 집사 (714-328-4820)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쥬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GMIMISSION

WWW.**FACEBOOK**.COM/GMIMISSION

2027 선교대회

2027 04/19-04/23

GMI 아프리카 중동 유럽 권역 선교대회

문의: 이정호 집사 (213-500-7939) O/T: 11/16(월), 7PM, 웨딩채플